

# 기독교 소비윤리에 관한 소고

이재율<sup>1)</sup>

(계명대 정경학부 교수)

## I. 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비의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다. 다만 마약, 매춘 등과 같이 소비자 자신이나 공급자 그리고 제3자인 이웃에게 장·단기적으로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소비의 자유가 제한된다. 소비의 자유는 자신의 부나 소득으로 타인의 제재를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소비할 자유를 말하며, 중요한 개인적 자유 가운데 하나이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신분에 따라서, 그리고 관습에 따라서 소비에 많은 제약을 받았으므로 소비의 자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현된 자유이다. 소비자는 이 자유를 바탕으로 원하는 대로 소비활동을 한다.

---

1) 이 글은 「경영경제」(계명대 산업경영연구소)에 실릴 예정인 같은 제목의 글에 약간 가필한 것임.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그렇다면 소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소비는 우선 생존을 위한 활동이다. 인간은 의식주의 필수품을 소비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인간은 안락함과 편리함을 추구하고, 오락과 향락을 추구하고도 한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는 이 모든 소비의 목적을 합하여 효용(만족)이라고 단순화한다. 생존을 위한 소비를 효용 추구라고 단순화하는 것에는 다소 왜곡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단순화는 필요하며 허기를 채울 때에도 만족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므로 이 단순화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신고전과 경제학은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므로 주어진 조건에서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물론 정보의 불완전성과 인간 이성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현실에서 항상 효용극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나,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효용이란 욕망의 충족이다. 모든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 즉 선호의 체계가 있다는 것인데 사람 사이에 매우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을 것이다. 각 사람이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사람들은 소비의 수준과 소비할 물건들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쉬워 보이는 소비활동도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다. 먼저 자신의 소득 가운데 얼마를 소비하고 얼마를 저축할 것인지 결정하는데,<sup>2)</sup> 여기에는 이자율이라는 객관적 요인과 시간 선호라는 주관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본다. 그리고 소비액이 정해지면 물건의 질과 가격 그리고 소비자의 선호가 작용하여 소비 품목이 정해진다. 여기서 물건의 가격과 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운 면이 많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다. 신고전학파가 가정하듯이 인간의 선호체계는 단일한 것이 아니다. 예컨대, 자연적 욕망은 육체적 향락을 원하나, 윤리적 선호는 책과 음악을 원하는 현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호사스런 소비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질박한 소비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식도 있어서 이중

2) 여기서는 타인을 위한 지출은 일단 제외하고 설명한다.

적인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sup>3)</sup>

그런 점에서 소비에 있어서도 반성적 의식, 즉 윤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소비생활은 어떤 것인가? 이 대답은 종교와 철학에 따라 다양하다. 몇 가지만 예로 들면, 금욕주의, 쾌락주의, 중용주의, 공리주의 등이 있다. 필자는 다른 연구에서 경제학이 철학적 바탕으로 삼고 있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소비의 윤리를 논구하여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sup>4)</sup> 첫째, 자신의 소비활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마약, 매춘, 담배, 알코올 등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과소비나 과시적 소비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시기심을 느끼게 하고 모방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 둘째, 자신의 만족을 순간적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극대화하는 소비여야 한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소비는 후에 후회를 낳고, 사치와 낭비는 장기적으로 가정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sup>5)</sup> 이 두 가지 원리는 다원주의적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에 추가해서 각자의 특정한 철학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바람직한 소비의 윤리를 정립하고 실천할 것이 요청된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소비윤리를 탐구해 보고 싶다. 기독교는 현실의 경제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의 소비윤리를 보여 주는 것은 성경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소비윤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은 워낙 방대하고, 다양한 관점을 보여 주기 때문에 일관된 소비 윤리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호사스런 삶에 대해 경고하는 구절이 많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눅

3)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Harsanyi(1995)는 소비자에게 단일한 선호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선호'와 '윤리적 선호'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역시 노벨상 수상자인 Sgn(1982)도 유사한 입장이다.

4) 이재율(1998) 참조.

5) 이 두 가지 원리는 아담 스미스의 정의와 신중의 덕에서 도출될 수 있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참조.

20장)에서 부자는 집 앞의 거지를 돌아보지 않고 호사와 연락을 즐긴 결과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부자의 죄는 호화사치였는가, 아니면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회피였는가? 두 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가 매우 부유하여 사치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거지를 도와줄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약 예언자들도 부유층의 사치와 연락을 맹렬히 비판하였다(사 5장)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검소한 삶을 이상적인 삶으로 배워 왔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고 평균적인 소득수준이 증가함과 동시에 소득격차도 크게 확대되어 왔다.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비생활이 사치스런 것은 아닌가 고민하며 갈등을 겪는다.<sup>6)</sup>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활용하여 향유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때로는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에 따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한다. 반면에 중산층 이하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박탈감과 시기심에 의해 부유한 그리스도인의 소비생활이 사치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양자가 모두 성경에서 올바른 소비생활의 지침을 발견하지 못해 고심하는 것이다. 사치는 악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한 시기에 사치품이던 것이 다음 시기에 필수품이 되는 현상을 보면서 무엇이 사치품이고 무엇이 필수품인지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 매우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소비생활의 원칙을 도출하려고 시도해 본다. 성경은 인류역사를 창조, 타락, 구속의 세 단계로 나눈다. 이 세 국면은 매우 다르므로 성경의 기본적인 세계관인 창조, 타락, 구속의 각 국면에서 소비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를 고찰한 뒤, 이것을 종합하여 오늘 우리의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

6) 황호찬(1996), p. 146 참조.

## II. 기독교 세계관과 소비

### 1. 창조와 소비

성경의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풍요한 동산으로 만드시고,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free) 먹되”(창 2:16)라고 하셨다. 죽지 않을 만큼만 먹으라고 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먹으라고 하셨다. 소비의 목적으로 생존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만족을 허용하신 것으로 보인다. 생존을 위한 소비를 할 때에도 허기에 서 벗어나는 만족이 있다. 혹은 고통의 경감으로서 만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존 수준 이상으로 적극적인 만족 추구를 허락하셨음을 말해 준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은 금욕주의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성경은 소비생활이 삶의 중심은 아님을 말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서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가지고 창조되었다(창1:27). 소비생활은 인간의 본질과 사명의 한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청지기는 주인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 자신의 만족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소비의 자유를 주셨다. 타락 이전에는 소비가 본래의 자리에 있었다. 소비가 주는 감각적 즐거움은 영혼의 통제 아래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소비나 소비에서 오는 만족 자체는 선한 것이다. 문제는 소비가 영혼의 통제를 떠나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에 발생한다. 창조의 원리는 소비도 원칙적으로 축복임을 말해 준다.

### 2. 타락과 소비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에게 내린 형벌은 “평생의 수고와 땀, 결핍, 죽음 그리고 에덴에서의 추방”이었다. 땅의 생산력이 떨어져서 평생 고

역을 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인간은 회소성의 원칙 아래 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타락 이래로 현재까지 빈곤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존양태가 되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강한 죄성이 작용하게 되었다. 죄성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상숭배의 죄로 나타나고, 타인에 대해서는 이기심으로, 자신에 대해서는 쾌락 탐닉으로 나타나기 쉽다. 타락한 인간은 육체적 욕망을 통제하기가 어려워,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기 쉽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타인과의 사랑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인간은 이기적인 욕망의 충족에 몰두하게 된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오랜 기간 매우 낮은 생산성으로 말미암아 겨우 생존 수준에서 소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비는 윤리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생산성이 높아지고 계급이 분화되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부유층의 소비행태는 중요한 윤리적 문제가 되었다.

선지자 이사야는 당시 불법적으로 토지를 사들여 부를 쌓은 부자들이 아침부터 연회를 열어 취하며 여인들이 호화스럽고 사치스런 치장에 열중함을 보고 이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였다. 이들의 일차적인 죄는 이들이 “여호와와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사5:12) 것이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것이다. 소비를 통한 만족의 추구는 하나님과 이웃을 등지게 만드는 경향이 강하다.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비가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겠지만 타락 후에는 주의 깊은 절제와 노력 없이는 자칫 과도한 소비로 흐르기 쉽다. 타락은 소비가 화를 초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 3. 구속과 소비

구속받은 백성은 어떻게 소비생활을 해야 하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마 6:24),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마 6:33)고 말씀하셨다. 인생의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분의 영광과 주권, 그리고 의의 의로운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인간의 모든 삶이 이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와 소비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준 엄한 경고를 하셨는데, 앞에서 인용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도 하셨다. 부는 탐욕과 부의 이상화, 사치와 낭비, 방탕을 낳기가 매우 쉽다. 누가복음에서 한 어리석은 부자가(눅 12장) 많은 소출을 보관할 창고를 짓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눅 12:19)고 속으로 생각하지만 그 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경고의 이야기가 나와 있다. 이 사람의 죄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것이었다.”

한편 예수님은 금욕주의적이었던 세례 요한과는 다르셨다. 그분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눅 7:34)이라고 평가되기도 했다. 예수님의 입장은 세례 요한의 금욕주의가 아닌 중용적인 태도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인간의 육체적 필요를 위한 최소한의 소비만이 아니라 비교적 자유롭게 대접받으신 것을 알 수 있다.

구속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강한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가 주는 쾌락은 강한 유혹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창조의 선함을 분수에 맞게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 III. 소박한 삶의 성경적 이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물질적인 복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신 28:1-14). 이 축복은 조건부 축복이다. 즉 순종에 따르는 축복이지 무조건적인 축복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순종은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또한 그것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적지 않게 퍼져 있다. 많은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벌고 호사스럽게 사는 데 골몰하고 심지어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사머니즘적인 기복신앙이다. 부자 가운데에는 순종에 의한 축복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도 있으나 반면에 온갖 불의를 통해 치부한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부자는 곧 축복 받은 자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등은 매우 부유한 족장이었고, 이들이 큰 재물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결과로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꽤 높은 수준의 소비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호사스런 삶을 살았다고 기술되어 있지는 않다. 친구약을 통틀어서 신앙인의 물질적 삶의 방식은 소박한 삶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이사야,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은 당시 부유층의 사치와 방탕을 질타했으며, 예수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들의 호화 연락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다. 성경에서 호사스러운 생활방식을 정당화하는 말쑼을 찾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인간은 그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풍부하게 주셨고 즐길 수 있게 하셨다. 다만 영적 질서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그러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인간을 섬기는 조건하에서 창조물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재물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그 기원을 선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것의 소비에서 오는 쾌락도 질서 속에서라면 선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고 만 것이 바로 문제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인격 내부에서는 본능과 감정이 이성과 양심의 통제를 벗어나면서 오히려 인격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하게 창조된 재물이 오용되고 인간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는 심각한 결핍의 사회가 되었다. 주변의 수많은 사람이 빈곤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와 사치는 자신의 영혼에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고, 따라서 성경에는 이웃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었다.

### 1. 소비 증가는 행복의 증가를 초래하는가?

일반적으로 더 많이 소비할수록 더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비수준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그러나 과연 소비의 증가가 더 큰 만족을 초래하는가? 전도자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그것이 헛되다고 고백하였다(전 2장).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눅 12:15)고 하시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소득과 소비의 증가는 만족의 증가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이스터린은 미국에서 30여 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행복함가에 대해 조사했다. 그 동안 소득과 소비가 꾸준히 늘어났지만 행복하다는 사람의 숫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그리고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는 선진고소득 국가가 아니라 방글라데시 등의 저소득 국가임이 보도된 바도 있다. 경제이론에서는 한계효용 체감 때문에 증가하는 정도는 체감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득과 소비의 증가는 만족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에서 들어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몇 가지 심리적 원리가 이 현상을 설명해 준다.<sup>8)</sup>

첫째, 적응 수준(adaptation level) 현상이다. 이것은 성공과 실패, 만족과 불만족이 우리의 이전 경험에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가늠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 만일

7) Richard Eastgrin(1973) "Dogs Mongy buy Happingss?", *The Public Intgrgst*, Wintgr, *Through The Eye of a Nggdig*, p. 394에서 재인용.

8) Ludwig and myqrs(1986), "Pcoortalli".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도 그것이 일상화되어 기대도 높아지면 우리의 만족은 증가하지 않게 된다. 기대가 너무 높아지면 소비의 증가에도 만족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플라톤의 말은 이에 핵심을 찌른다. “빈곤은 소유의 감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증가에 있다.”

둘째,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의 원리가 존재한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의 경험과의 비교에 의해 판단된다는 것이다.<sup>9)</sup> 인간은 자신의 처지를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만이 아니라 타인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모든 사람의 소득과 소비가 같은 비율로 상승하면 모든 사람의 만족도는 불변이다.

셋째, 인간성 속에 아전인수식 편견(self-serving bias)이 있다고 한다. 즉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괜찮은 존재로 본다는 것이다. 소득이나 소비가 증가할 경우에도 자신은 더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증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므로 오히려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다.

넷째, 상향 비교(upward comparison)의 원리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할 경우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이 아니라 우월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사회적 신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도 항상 그 위에는 더 높은 계층이 있게 마련이다. 이것도 소득과 소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행복도가 증가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러한 심리적 원리는 소득과 소비의 증가가 행복의 길이 아님을 보여준다. 소비의 증가는 빈곤에서 벗어나기까지는 만족을 크게 증가시키나 그 후에는 만족도의 증가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큰 착각 가운데 있으면서 소비를 늘려 행복을 얻기 위해 목말라하지만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목마르게 된다. 순간적으로 만족을 얻으나 다음에 더 목말라지는 이런 악순환에 사로잡히면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는 길을 찾지 못한다.

9) 상계 논문, pp. 142-143 참조.

## 2. 우상숭배의 위험

성경에는 부가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다른 한편으로 부의 소비에서 오는 쾌락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배를 신으로 삼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저희의 마음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빌 4:19)

감각적 쾌락을 신으로 삼는 자들은 멸망하고 만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는 최종 목적이 쾌락에 있다. 소비에서 오는 쾌락 혹은 만족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쾌락에 탐닉하여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거나 불순종하고 나아가 부정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최대 관심사가 부를 취득하여 소비하는 것에 있게 된다.

예수님이 드신 비유를 보자. 어리석은 부자는 소출이 풍성해지자 속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쾌재를 불렀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눅 12:19).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라고 평가하셨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이 부자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도 이와 아주 비슷하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눅 16:19).

그는 다른 것에는 전혀 무관심한 채 호의호식하며 쾌락을 추구하였

다. 그러나 그도 마침내 죽어 심판을 받았다. 이들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사랑하고 말았다.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는 당시 지배 계급의 소비행태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암 6:46).

이로써 고대사회에서도 부자들의 호사와 사치가 문제가 되고 비판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풍요한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한 현상이 많아질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기술진보와 투자에 의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증가된 생산물은 어떤 용도로든 판매되어야 하므로 기업은 생산물을 시장에서 팔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며, 이 과정에서 광고가 동원되고 광고는 정보 전달의 수준을 넘어 소비주의의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조금만 낚아도 버리고 새로운 상품을 사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낸다. 유행에 뒤지면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마치 이 물건을 사면 행복은 저절로 오는 양 현혹한다.<sup>10)</sup>

게다가 현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는 쾌락이다. 사도 바울도 말세에 대해 언급하면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딤후 3:4)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근대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들 대다수는 현세적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sup>11)</sup> 현대의 쾌락주의가 고대의 쾌락주의와 다른 점은 고대의 쾌락주의가 행복이 욕망을 통제하는 데 있다고 본 반면, 현대에는 감각적 쾌락을 마음껏 추구하는 데 있다고 본 점이다.

10) 광고의 영향에 대해서는 조용훈(1996a)을 참조하기 바람.

소비가 주는 쾌락, 다른 사람에 대한 과시, 자기 만족 등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우선 안락과 쾌락을 중시하고,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멀리하게 된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 소비의 증가는 편의와 안락, 그리고 문화적 욕구 충족 수준을 넘어 사치와 방탕으로 가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신이 지금 소비에서 오는 쾌락을 우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에 탐닉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재물에 대한 탐욕을 갖게 된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골 3:5).

### 3. 가난한 사람들의 존재

성경에서 호사스런 소비생활을 강하게 비판하는 중요한 이유는 가난한 이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중의 빈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것은 선진국에서도 100년 안팎의 일이며, 현재에도 제3세계에서는 10억 이상의 빈민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1)</sup>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물질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의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잠 14:31)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잠 19:17).

11) 김완진 외(1996), 2장 참조.

12) 1996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13억의 사람이 하루 1불 이하의 돈으로 살고 있는 절대빈곤 인구라고 한다. 이들을 제외하고도 20억의 인구가 매우 가난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로날드 사이더(1998), p. 21 참조.

하나님은 자신을 가난한 자들과 동일시하신다.<sup>13)</sup> 신약에서 예수님도 가장 미천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마 25:44-45).

예수님은 비천한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라고도 선언하셨다(마 25:46).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참으로 귀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제시되어 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토지를 가족수에 따라 매우 공평하게 분배하였고, 토지를 매매하지 못하게 하여 공평한 분배상태가 세대가 지나도 유지되게 하였다. 일시적인 불운이나 급박한 필요에 의해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50년간 토지의 사용권을 팔아서 용도에 충당하되, 50년마다 돌아오는 회년에는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하였다. 회년이 되기 전이라도 본인의 처지가 개선되거나 친족의 힘에 의해 토지를 되살 수도 있었다. 이 때 회년이 얼마 남았는가에 따라 토지 사용권의 가격은 달리 결정되었다. 그리고 추수할 때 전답의 주인은 이삭을 얼마간 남겨두어 가난한 사람들이 주어서 생활에 쓰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 빌려준 돈에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고, 칠 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은 면제년으로 모든 빚이 탕감되는 해였다. 이것으로도 가난은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소득의 1/10인 십일조를 내어 토지를 분

13) 사이더(1998), p. 19 참조.

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의 생활비에 쓰고 얼마는 축제에 사용되었다. 3년마다 1/10을 더 내어 주위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다(레 25장 신 14:15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눅 16:19-31)와 양과 염소의 비유(마 25:31-46) 등은 가난한 이웃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 의무인지를 잘 나타내 준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소개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설교가 그대로 실현된 모습을 보여 준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행 3:44:45).

우리가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웃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토지제도, 금융제도 등 사회제도를 통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었다.

#### IV. 소비수준의 결정

위에서 그리스도인은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소박하게 살아야 하는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가난하게 사셨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초대에 응하셨다. 성경의 교훈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느 정도의 소비수준이 적정한가?

개인의 소득 가운데 조세를 납부한 후 남는 가치분소득은 소비, 저축, 현금, 구제금 등으로 사용된다. 여기서는 현금과 구제금을 타자를 위한 지출로서 한 묶음으로 구제금으로 본다. 그렇다면 소비, 저축, 구제, 이 세 가지 용도로 얼마의 비율로 지출하는 것이 성경에 부합하는가?

성경은 자신의 장래를 위해 재물을 축적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고 하셨다(마 6:19-20).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이 있는 마당에 자신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리고 부를 의지하지 말고 새처럼 걱정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도 부를 축적하는 것은 좋지 않게 보였다. 이에 대해 제임스 홀트맨은 당시의 경제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생존지향의 경제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오늘날과 같이 저축과 투자에 의해 고용과 소득이 늘어나 가난을 해결할 수 있게 되면 저축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는 것이다.<sup>14)</sup> 오늘날에는 저축에 대한 평가가 성경시대와 달라야 한다. 소득 중 일정액을 구제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저축하면 당장에는 가난한 사람의 구제를 저해하나,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게 된다. 이 측면 이외에도 장래의 필요를 충당하기 위한 저축은 현재의 소비와 마찬가지로 장래의 소비이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장래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생각하여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손을 펴지 못하고 축적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성경의 교훈에 위배된다고 하겠다.

구약성경에는 매년 드리는 소득의 십일조와 3년마다 드리는 들째 십일조가 나온다. 그 외에 각종 절기 때 드리는 헌물이 있었다. 그러면 대략 소득의 14% 이상이 된다. 신약에는 십일조가 강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활비 전부를 연보함에 넣은 가난한 과부의 행동을 칭찬하신 기사가 나온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막 10:21)고 하셨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내 것, 네 것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 준다. 또한 마게도냐 교회가 가난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14) 제임스 홀트맨(김원주 역, 1999), 5장 참조.

자원하여”(고후 8:3) 연보하였다. 감리교 창설자인 존 웨슬리는 자신은 최저생활비만 사용하고, 증가하는 소득은 모두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모범을 보여 주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자발적인 가난을 요구하는가?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다.

성경은 결코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는다. 십계명 중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데, 이것은 사유재산의 보호를 위함이었다. 그리고 구약의 족장들이나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토지는 개별 가문의 생산 수단이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여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공동체의 경비로 제공하였으나, 재산을 일시에 모두 판 것은 아니었으며, 어느 정도의 재산은 계속 보유하였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계속 사유로 남았으며 공동체의 모임에 사용되기도 하였다(행 12:12). 강제적인 공유는 물론 아니었으며, 또한 자발적인 공유도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주라고 명하는가?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고후 8:13-14).

사도 바울은 여기서 평등주의를 말한 것인가? 모든 사람은 거의 같은 생활 수준을 누려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판이하게 다르며 우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는 홀트맨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는 필요에 기초한 자발적인 나눔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15)</sup> 이 말은 한 가

15) 제임스 홀트맨(김원주 역, 1999), p. 18 참조.

정처럼 유무상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교회와 교회 밖을 분리한다. 이기성이 강한 세상 나라에서는 이 원리가 실현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실현되어야 할 이상이라는 것이다. 로날드 사이어는 성경적 원리가 일차적으로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결국은 세속사회로 파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sup>16)</sup> 사이어는 구약의 교훈을, 모든 사람이 필수품을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필수품이란 말이 굶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모든 가족이, 최소한의 의식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참여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생계를 꾸려 나갈 자원을 소유하는 경제적 기회의 평등”<sup>17)</sup>을 누려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그는 절대적 평등주의를 주장한 것은 아니나 상대적 평등이 하나님에 바라시는 바라고 본 듯하다.

반면에 칼빈 바이스너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극빈 혹은 절대빈곤이라고 말한다. 그는 상대빈곤은 성경적 빈곤 개념이 아니라고 하였다. 가난한 자는 “생활을 유지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 수단을 획득할 수 없는 사람들,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sup>18)</sup>로 정의된다. 그런 사람들은 노약자, 어린이, 장애자 등이고 “신약에서는 오직 그런 사람들만이,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구호 대상이 될 수 있다”<sup>19)</sup>고 바이스너는 주장하였다.

위에서 우리는 세 사람의 해석을 살펴보았다. 홀트맨은 사랑에 의해 완전한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사이더는 모든 사람이 최저생활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바이스너는 모든 사람은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어느 해석이 성경에 부합하는가? 홀트맨의 이

16) 로날드 사이어(한화룡 역, 1998), p. 108 참조.

17) 위의 책, p. 108.

18) 칼빈 바이스너(김재영 역, 1993), p. 354.

19) 위의 책, p. 355.

상은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사이더는 상대적인 평등주의를 성경적 정의관으로 보는 것 같고, 불의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국내적 및 국제적)를 혁파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검소한 삶과 자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바이스너는 절대적 빈곤만이 구제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그는 성경적 정의는 사유재산제도가 지켜지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잘 달성된다고 보고 정부의 재분배정책은 성경적 정의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극빈자의 구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맡아야 할 일이라고 보았다. 이 점에서 상대적 평등주의 정의관을 성경적이라고 보고 정부에 의해 시장경제의 불평등을 시정해야 한다고 본 사이더와 차이가 있다.

실행방법의 면에서, 바이스너는 빈곤을 극빈으로 정의하고 국내의 빈곤문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십일조만 해도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이더는 빈곤을 매우 넓게 정의하고 제3세계의 빈곤까지 해결하려고 하므로 구조적 개혁과 아울러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누진적 십일조를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소득이 일정액 이상보다 더 증가하면 소득의 10%이상의 체증하는 비율로 구제헌금으로 바치는 것이다. 그 자신의 예를 보면, 월 2,000달러 가량을 기초액으로 잡아 10%인 200달러를 기초 십일조로 드린다. 다음에 소득이 100달러 증가할 때마다 15%, 20% 등으로 맨 마지막 소득 증가액의 십일조 비율이 누진되는 것이다. 월소득이 3,800달러 이상일 때 소득 증가분은 모두 십일조로 드려진다. 홀트맨의 제안은 교회 내에서 완전한 이상적 공동체의 실현을 지향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헌신된 신앙 공동체 내에서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각자의 소비수준을 결정하고 나눔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는 오늘날 교회 내에서 서로의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경향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개인보다 공동체가 좀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는 세 모델 가운데 어느 것이 좀더 성경에 부합하는가를 논증

하려고는 하지 않겠지만, 십일조만으로도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바이스너의 제안은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다. 이것을 기초로 사이더나 홀트맨의 제안으로까지 나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개인의 소비수준을 결정하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도 호사스런 삶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승배의 죄에 빠지거나 잘못된 쾌락을 좇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즉 자신을 위해서도 소비수준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가난한 이웃의 필요이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급박한 필요를 외면하고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려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셋째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있는 사랑의 강도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정도만큼 사랑을 실행할 것이다. 우리가 이웃과 나누지 못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사랑은 미약한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가 절실히 요구된다. 다만 자신의 가족의 필요도 다른 가족의 필요만큼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하라”는 어거스틴의 말을 이렇게 고쳐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과 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쓴 후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써라.” 여하튼 십일조는 많은 부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하고, 십일조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물질생활의 첫걸음인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sup>20)</sup>

## V. 요약 및 결론

우리는 일상적인 소비생활에서 단순히 선호만이 아니라 소비의 윤리가 작용함을 인식하고 특별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소비의 윤리가 무엇인가를 고찰하였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세계관에 따라 창조, 타락, 구속의 국면이 소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창조는 부와 소

20) Moorg(1989)는 도움을 받는 사람의 의무도 강조한다. 이삭줍기의 예처럼 노동능력이 없는 자를 제외하고서는 스스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pp. 216-217 참조.

비의 긍정적이고 축복된 점을 보여 주나, 타락은 그것이 자칫 탐욕과 우상숭배, 가난한 이웃에 대한 민감성의 결여를 초래할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은 타락으로 인한 죄의 가능성을 피하면서 창조시의 축복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소박하게 살기를 요구한다.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소비의 증가가 결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 심리적인 원칙이 작용하여 소득과 소비가 증가해도 만족의 증가는 미미할 뿐이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온다. 둘째, 소비가 주는 쾌락에 탐닉하면 그것을 우상화하기 쉽고, 나아가 부에 대한 강한 탐욕이 생긴다. 이것은 영혼을 엄청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많은 사람들이 아직 빈곤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비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제임스 홀트맨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확연히 구분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는 유무상통의 완전한 공동체를 목표로 추구해야 한다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로널드 사이더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정치경제적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소박한 삶과 자선을 요청하였다. 칼빈 바이스너는 성경이 말하는 빈곤은 절대빈곤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십일조를 행하면 가난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세 관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연구가 될 수 있는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바이스너의 제안이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지적하는 선에서 그치려고 한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강하게 밀려오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소박한 삶의 교훈이 힘을 잃고 있다. 성경은 타성에 젖은 우리에게 강도 높은 검약과 자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완진·송현호·이재율, 「공리주의·개혁주의·자유주의」(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이재율, “소비선택의 자유와 소비윤리”, 「사회과학논총」, 제17집(계명대 사회과학연구소, 1998).
- 조용훈 “현대 소비문화와 그리스도인의 삶”, 「통합연구」, 제11권 1·2호, 통권 33호 통합연구학회, 1998).
- 조용훈, “신앙과 경제윤리”, 「통합연구」, 제11권 3·4호, 통권34호(통합연구학회, 1998).
- 황호찬, 「돈-그 끝없는 유혹」(서울: IVP, 1996).
- 로날드 사이더, 한화룡 역,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서울: IVP 1998).
- 리처드 포스터, 김영호 역, 「돈, 섹스, 권력」(서울: 두란노서원, 1989).
- 아담 스미스, 박세일·민경국 역, 「도덕감정론」(서울: 비봉출판, 1996).
- 제임스 홀트맨, 김원주 역, 「신앙과 경제」(서울: 아가페, 1999).
- 칼빈 바이스너, 김재영 역, 「경제정의 실천을 위한 바른 경제윤리」(서울: 나침반, 1993).
- Harsanyi, J. C., “Cardinal Welfare, Individual Ethics and Interpersonal Comparisons of Ut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55, rep. in E. S. Phelps ed., *Economic Justice*, Penguin, 1973.
- Ludwig, Thomas and David Myers, “Poortalk”, Original title was “How Christians Can Cope with Inflation”, *The Christian Century*, May 1979, rep. in *Through the Eye of a Needle*, ed. by Department of Economics and Business, Calvin College, 1986
- Marshall, Paul, “Quality of Life: Measuring the Unmeasurable”, in *Through the Eye of a Needle*, ed. by Department of Economics and Business, Calvin College.
- Moore, T. M, “The Private Sector and the Poor”, *Biblical Principles & Economics*, ed. by Chewning, Richard C., Navipress, 1989
- Sen, A. K.(1982), *Choice, Welfare and Measurement*, Basil Blackwell.

ABSTRACT

A Treatise on Christian Ethic of Consumption

Lee, Jae-Yool

Modern economics says that human preference determines consumption subject to given income and prices. It assumes preference is complete and transitive and simple. But some scholars say there are subject and ethical preferences at the same time. In our ordinary life, there are conflicts between our preferences. We need ethic of consumption in consumption life.

I am interested in Christian ethic of consumption. The Bible recommends simple life in consumption.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increase in income and consumption does not tend to increase happiness much. Several psychological principles work here such as adaptation level, relative deprivation, self-serving, upward comparison principles.

Secondly, being indulged in consumption gives rise to danger of idolatry.

Thirdly, there are a lot of poor people. We are responsible for them.